



너는 野花
나는 野好

충남 청양 고운식물원.

관광공사 추천 식물원 나들이

벌써 1년의 절반을 지나 7월로 접어들었다. 강렬해질 태양 아래 녹음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생동하는 자연 속에서 만끽하는 여유.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자연과 어우러진 7월의 나들이다.

◇원시림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 양구생태식물원
강원도 양구 대암산 자락 6만여 평에 동지를 틔 양구생태식물원은 자연과 숲을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주과학놀이터와 피크닉광장을 지나면 계곡에 걸린 초롱다리가 기다린다. 다리를 건너 계단을 오르면 손때 묻지 않은 비밀의 숲이 시작된다. 자연스럽게 자란 나무들로 사방이 뽀뽀하고, 발 옆으로 야생화가 철 따라 피고 진다. 요즘은 꿀이 가득한 보랏빛 꿀풀, 별처럼 생긴 노란 꽃을 피우는 기린초, 우산을 펼친 모양이 특이한 우산나물, 빨간 보석 같은 산딸기 등을 만날 수 있다. DMZ 지역의 생태계를 보여주는 DMZ야생동물생태관, 파로호 위로 날아가는 짜릿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질라인(사진 가운데), 백두산에서 제주도까지 한달음에 볼 수 있는 한반도섬 등도 함께 둘러보기 좋다. '박수근 작고 50주기 추모 특별전'이 열리는 박수근미술관, 청춘고래와 청춘크루즈 같은 이색 건물과 야외 수영장이 있는 양구레포츠공원 등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문의: 양구군청 생태산림과 033-480-2171)

◇숲·정원 어우러진 야생화 배움터, 청양 고운식물원
충남 청양의 고운식물원은 37ha에 이르는 숲 전체가 정원으로 꾸며진 야생화 배움터다. 수종에 따라 식재된 다양한 테마 정원과 야생화가 피고 지는 탐방로를 돌아보면 식물원의 이름처럼 고운 빛의 마음이 그득해지는 공간



이다. 1990년 부지 조성이 시작된 뒤 25년의 시작이 지나면서 8800여 종의 수목과 꽃이 알뜰하게 식물원을 채우고 있다. 습지원과 수련원, 일년초원, 비비추 군락이 여름날의 식물원 여행을 즐겁게 한다. 탐방로 곳곳에는 바위취, 섬초롱꽃, 노루오줌 등 여름 야생화가 슬며시 고개를 내밀고 발길을 잡는다. 임파센스, 피튜니아 등 원예식물도 화사하고 열정적인 빛깔을 뽐내며 여름을 빛내고 있다. 아이 어른 모두 즐거운 물러슬라이드는 숲 여행에 재미를 더해준다. 청양목재문화체험장과 칠갑산천문대 스타파크(사진 아래), 천장호 출렁다리까지 청양 여행을 알차게 즐겨볼 수 있다. (문의: 고운식물원 041-943-6245)

◇여름 꽃 핀 무릉도원, 포항 기청산식물원
포항 하면 떠오르는 것은 영일만 바다와 제철공업이다. 그러나 포항을 기억하게 할 자연이 있다. 포항 북구 일대에는 전국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생태 여행지가 여럿이다. 먼저 기청산식물원은 환경부가 지정한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경상도의 멸종 위기 식물이 다수 자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울릉도의 야생화가 두드러진다. 섬시호, 섬말나리, 섬기린초 등을 볼 수 있는 울릉식물관 정원까지 갖추고 있다. 포항의 '작은 울릉도'라고 할 수 있다. 식물원의 풍경 또한 비밀의 정원처럼 은은하고 화사하다. 뿌리가 위로 자라는 낙우송이나 대수 미로(사진 위) 등도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지척에 있는 경상북도 수목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넓은 수목원이다. 동해가 보이는 수목원이다. 12폭포와 기암이 어우러진 내연산도 빠트릴 수 없다. 신선이 사는 곳을 보는 듯하다. 포항 북쪽 생태 여행의 삼총사다. (문의: 기청산식물원 054-232-4129)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캐리비안의 해적

캐리비안 베이, 뮤지컬·보물탐험 등 해적 이벤트

올 여름 캐리비안 베이에 '해적 이벤트'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해적밴드 뮤지컬 공연 '트레저 헌터'가 오는 8월 23일까지 캐리비안 베이에서 매일 4회씩 진행되며(화요일은 휴연), 비보잉 댄스와 밴드 연주자 등 12명의 연기가 등장해 라이브 연주 음악에 맞춰 20분 동안 신나는 뮤지컬 무대를 선보인다.
연기자들이 객석 손님들에게 미션을 주기도 하고, 손님들과 함께 댄스 타임을 펼치는 등 직접 참여하며 즐기는 체험형 공연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8월 23일까지 해적 복장을 한 연기가 갑자기 나타나 손님들에게 코믹 연기를 선보이고 포토타임을 갖는 등 게릴라 해적 퍼포먼스도 함께 이뤄진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18일부터 8월23일까지는 6~8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해적 체험 프로그램인 '해적 보물 탐험'을 만날 수 있다.
참가 어린이들은 해적 복장과 페이스 페인팅 등을 통해 해적으로 변신하고 약 한 시간 동안 캐리비안 베이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다니며 체조, 비치볼 멀리 보내기,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미션형 게임을 수행하게 된다.
회당 15명씩 매일 4회씩 진행되는 '해적 보물 탐험'은 별도 체험비가 있으며, 캐리비안 베이 방문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와일드리버 지역에서 진행되는 '해적 보물 탐험'은 캐리비안 베이이 유아교육 및 놀이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해 올해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교육부 유아교육과정인 누리 과정의 주요 지침들을 기반으로 개발되면서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에듀테인먼트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또 오는 4일, 마리아나 관광청과 함께 'PIC 서핑 라이트 대회'를 개최해 사이판 왕복 항공권, PIC 리조트 숙박권, 액션캠, 화장품 등 푸짐한 선물을 증정한다. 대회는 보드판을 이용해 파도타기를 즐길 수 있는 어트랙션 '서핑 라이트'에서 열리며, 대회 당일 캐리비안 베이로 찾는 이는 누구나 선착순 현장 접수를 통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남유일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 2년만의 **빅세일** 7월 25일까지

이태리가구 SALE

www.hong79.com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홍스케이스** 가구빌딩 SINCE 1990